

# E&C 수익회복 “갈 길은 멀고...”

## 경기약세로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 ... 아시아 투자 SARS로 위축

화학산업의 슬럼프에 따라 E&C(Engineering & Construction)기업들의 수익회복에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.

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M&A, 구조조정 또는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미국 화학기업들은 경기침체, 과잉공급, 수익약세에 떠밀려 자본지출을 삭감하고 프로젝트를 지연 또는 취소하는 사태가 초래됐다.

중국 및 중동에서는 화학 프로젝트가 여전히 활발하지만 기타 지역은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미국의 석유화학 시장은 몇년간 프로젝트가 극소수에 불과했고 생산능력이 과다해 합병이 지속되고 있다.

이에 일부 E&C기업들은 비용 및 인력을 감축하고 바이오테크 같은 성장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미국의 동서부지역 사무소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E&C기업들은 중소 규모 화학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인데 석유화학 산업이 전통적 투자주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. 다만, 경제불황을 비롯해 9.11사태, 이라크전, 중동의 불확실성 같은 요인들이 회복을 늦춰 왔다.

하지만, 중동 및 중국에서 투자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Polyester 체인에서 투자활동이 나타나고 있다. UOP 또한 P-X(Para-Xylene) 분야에서 활동중인데, 1990년대 과다증설 이후 수요가 공급을 따라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프로젝트 투자가 크게 상승할 지는 장담할 수 없고 2004년 하반기까지 프론트엔드(Front-End) 엔지니어링이 크게 증가하거나 대규모 건축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.

Shaw Group의 S&W(Stone & Webster) E&C 사업은 에틸렌 및 석유화학 유도제품 분야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, 2004년 석유화학 산업이 보수작업을 시작하면 국산 제품을 필요로 하는 중국 및 극동지역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WGI(Washington Group International)는 바이오테크 및 약품 시장에서 5000만달러의 중형 또는 소형 프로젝트가 예상되고, 특허만기로 경쟁기업들의 R&D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. WGI는 2002년 3월 Aventis Pasteur와 7750만달러 계약을 맺고 펜실베이니아주 Swiftwafer에 백신 플랜트를 설계·건설한다.

미국-이라크 전쟁도 E&C 산업에 엇갈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Bechtel 및 미국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수백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확보했고 다른 E&C기업들도 종전 이후 중동지역 전반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5/11>.